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밤미사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12월 생활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밤미사 (23. 12. 24.)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9,1-6):

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4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 제2독서(티토 2,11-14):

사랑하는 그대여,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13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 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복음(루카복음 2,1-14):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

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성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를 비추시어, 교회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이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본받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며 시대 정신을 읽고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실천하게 하소서.
3.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이나 분쟁으로 삶의 자리를 떠난 이들을 살피 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주시고, 사회와 이웃의 환대 속에 생활하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행복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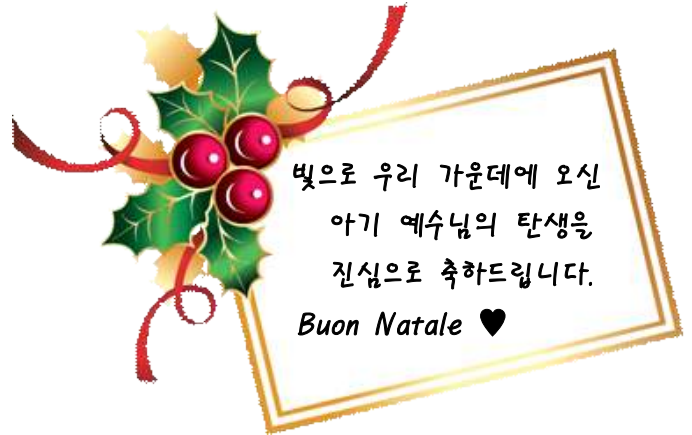
영성체 후 기도

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성가 ♪

구유경배성가: 99(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5(사랑의 아기 예수), 108(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봉헌 : 103(오늘 아기 예수), 107(천사의 찬송)
 성체 : 102(어서가 경배하세), 100(동방의 별)
 파견 : 484 (귀여운 아기들)

공지 사항



♣ 성탄 판공성사

- 아직 성사를 못 보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31일)까지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내일 성탄 대축일 낮미사 후 친교 나눔 있습니다.

- 장소 : 오라토리오 1층 친교실

♣ 봉사자

	성탄 밤미사(24일)	성탄 낮미사(25일)
제1독서	허희숙 마리아	이경진 카타리나
제2독서	박수정 클라라	안서현 안젤라
복사	정상현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강한 프란체스코 노부야 이초가티안
복사	변의용 베네딕토 정명룡 미켈레	박동현 요한보스코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허희숙 마리아	이경진 카타리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63.35€ • 교무금 470.00€